

지역 소식통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영

정읍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 봉안당과 자연장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 운영하며, 화장시설은 추석 당일에만 운영하지 않는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추석연휴에 방문하는 추모객들을 위해 주변 별초를 하고, 안내 현수막 설치 등 새단장을 마쳤다. 아울러 성묘객이 집중되는 시설에 환경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한 안내요원 8명을 배치하는 등 성묘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개인 방역을 꼭 지켜 안전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소중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 · 단속 실시

부안보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 ·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공중이용시설 지도 · 단속은 3개 점검반으로 구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음식점, 찜사, 실내·외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2,751개소와 부안군 조례지정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44개소 포함 2,795개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고창군, 8개지구 47억1800만원 투입... 대산 화룡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 청솔제 등

고창군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련, 내년 재해예방사업으로 8개지구 47억1800만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재해위험지구(신규 2개, 계속·마무리 5개), 가뭄재해위험개선(신규 1개) 등 재해예방사업 8지구에 투입할 국비 29억9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재해예방사업 신규지구는 대

산 화룡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고창읍 청솔제, 부안면 용현제 재해위험지구 3개소다. 총사업비 215억원(대산 화룡가뭄지구 180억원, 청솔제 17억원, 용현제 18억원)을 확보했다. 계속지구인 아산면 중북제, 성송면 중산제, 고창읍 은동제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발주 착공단계다. 2025년 장마 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마무리 지구인 아산면 가장제, 아산면 장암제는 현재 공정을 65%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관련 중앙부처, 국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상습가뭄지역 및 노후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재해예방 및 안정적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내년 로컬푸드 온라인판매 매출액 50억 목표 기반 마련

부안군 부안우체국-한국우편사업진흥원, 로컬푸드 온라인판매 활성화 협약 체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부안우체국(국장 임선옥),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과 부안 로컬푸드상품 온라인판매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 부안로컬푸드 온라인 판매 매출액 50억원 달성의 채담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안군은 농가 발굴 및 생산관리를 부안우체국은 우체국소평품을 통한 판매활성화 프로모션 운영 진흥원은 타온라인판매 채널 확보 및 관리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부안군은 2021년부터 이커머스시장인 우체국, 쿠팡, 전북도생생장터 등에 뛰어들어 주요농산물인 전년의송씨살, 동진간자, 양파 등을 판매하여 지난해 32억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나번 조작개편을 통해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만들어 부안로컬푸드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이커머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문화의전당서 유시민 작가 초청 강연



고창군이 21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유시민 작가(前 보건복지부장관) 초청해 '우리의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작된 강의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강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민중의 자세에 대해 전달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민주주의의 원칙인 '주권재민', '법치주의', '자유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개념을 안내하며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유쾌하게 소통했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주의가 대세가 된 이유는 경쟁력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라며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고, 개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나쁜 권력자를 뽑아도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가 문명에 대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주주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는 무엇이 있을지', '탄핵이 왜 필요할지'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대중들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군민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고창=김영식 기자

신활력 · 소상공인 경제 아카데미

고창군, 엄길청 투자전략가 초청 소상공인 경영 실천 전략 강연

고창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치호)와 고창군은 지난 20일 오후 군민과 함께하는 제2회 신활력·소상공인 경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마지막 신활력·소상공인 경제 아카데미로 더욱 알차게 구성됐으며, 1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민생현장 솔루션"을 진행하였고, 2부는 국제투자 전략가인 엄길청 교수의 "소상공인 경영실천전략"이란 주제의 강의로 경제에 관심 있는 군민·기관·사회단체장·기업·소상공인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진행한 "민생현장 솔루션"은 소상공인과 기업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영·세무·위생·노동 컨설팅 및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1:1 컨

설팅을 진행하여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고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카데미 세 번째 강연은 엄길청 국제미래학회 미래경영위원장의 '소상공인 경영실천전략'을 주제로 고금리·고물가 시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엄길청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전략으로 정부의 국제사회 변화 대응에 우선, '지역경제는 자립 자강의 시대', '공직자와 지역 상공인들의 협업', '경제 활성화에 주민 단합 절실', '교육한 지역 경제력 결집'을 꼽았다.

노형수 고창군부군수는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자립과 지역 상공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달하미술관, 21일부터 작가지원 전시 개막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역 작가지원 3차 전시를 선보인다.

달하미술관은 신태인 연지, 수성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자 문화공간에 조성된 야외 전시 공간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순복, 장현화, 박경희 작가 작품 22점을 볼 수 있다.

신태인에서는 김순복 작가의 빛으로 그려낸 자연의 아름다움 전이 진행된다. 작가는 항상 그곳에 있기에 무심히 스치던 풍경을 작가만의 시선으로 표현한 맑고 투명한 수채화 작품을 선보인다.

연지에서는 강희경 작가의 '강희경 유리회화-헤쳐나가기'전을 만나볼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난관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

한번 해볼 만한 난관이면 즉시 용기를 내어 헤쳐 나가기 를 시도할 수 있다. 작가는 자신에게 용기를 준 동물, 자연을 모티브로 독특한 유리 회화를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성에서는 박경희 작가의 기억의 향기 전이 개최된다. 한국화와 민화를 그리는 작가의 작품은 심리적으로 소멸돼 있던 나를 발견하게 한다. 작품은 언제나 위안의 손길을 내어준다. 어느새 위로가 돼 주고 다시 열심히 살아갈 에너지를 준다. 작가가 그렸던 것처럼 작품들을 공간에서 마주할 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2024년 농촌유학 거주시설 임대 제공자 모집

정읍시는 농촌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거주시설 임대 제공자를 모집한다.

현재 전북도에서는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면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농촌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7지구 18명의 농촌유학생이 협력학교로 지정된 이평초, 영원초, 응봉초를 다니고 있고 칠보초와 칠보

중, 왕신여중이 신규로 신청했다. 이에 시는 협력학교가 소재한 읍·면과 봉곡구 내에 위치한 지역의 거주시설 임대 제공자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생활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 주택이거나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한 주택 등으로 기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나 인재양성과(☎063-539-557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